



거북이 버스

글 차율이 | 그림 차상미 | 판형 152x210mm | 가격 12,000원
한국안데르센상 수상작!

숲속에서도 바다에서도 씩씩 달리는 멋진 거북이 버스!
“어디든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. 출발!”



내가 거북이였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?

거북이 버스를 완성했을 때

첫 손님인 달팽이 가족을 태웠을 때

숲속 친구들이 거북이 버스가 느리다며 화를 냈을 때

넘쳐 버린 강물에서 숲속 친구들을 구해 줬을 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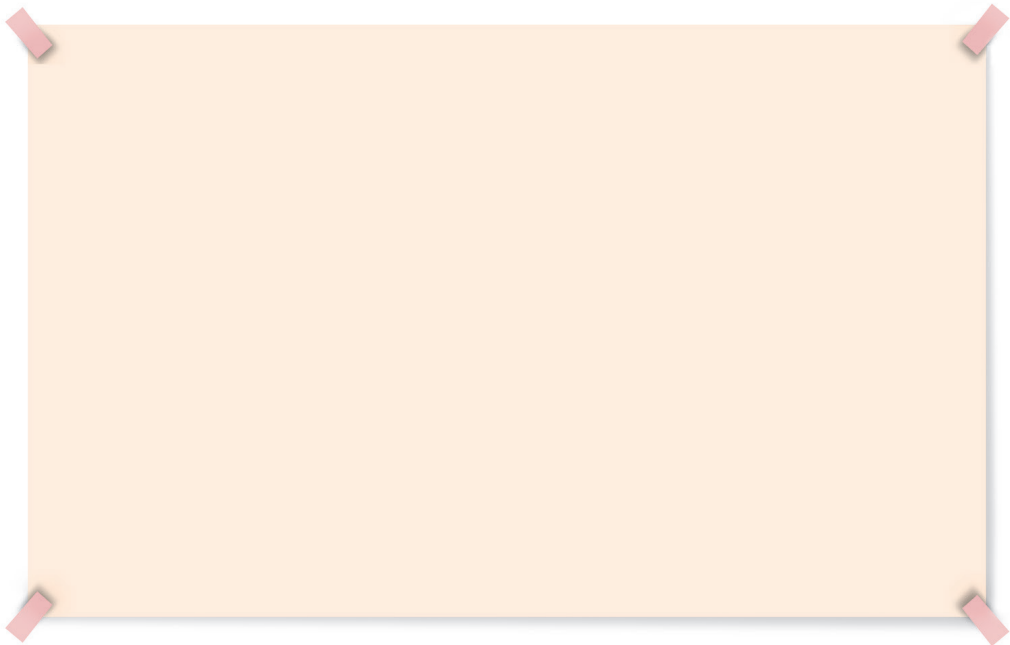


달팽이의 꿈

“달팽이도 바다를 건널 수 있어.
친구와 함께라면 높은 파도도
홀쩍 뛰어넘을 수 있다고!”



바다를 건너고 싶었던 달팽이처럼, 불가능한 꿈이 있나요?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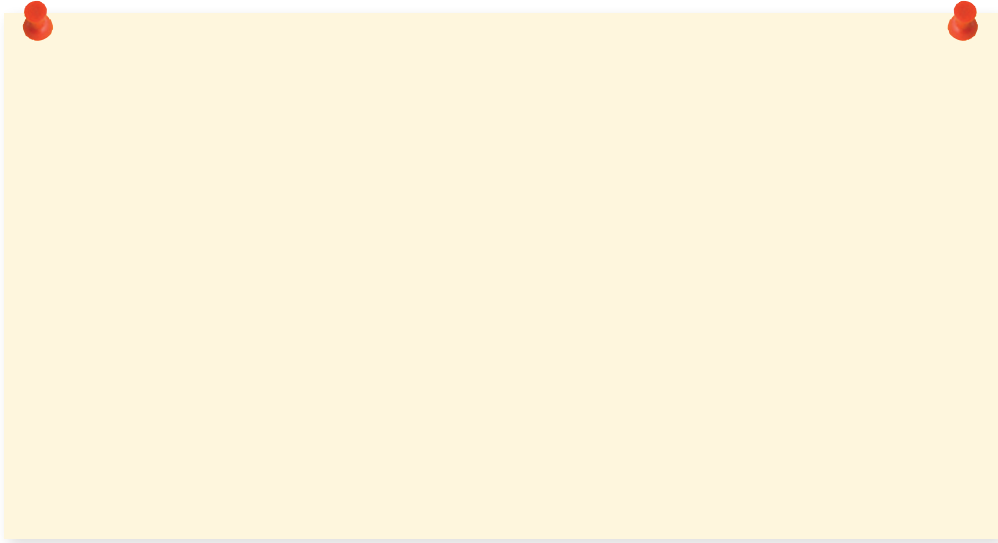


안녕, 돌고래야

돌고래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피했던 숲속 친구들 때문에 돌고래는 많이 슬펐어요.

사실은 조금 다른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.

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돌고래에게 편지를 써 볼까요?





메리 크리스마스!

숲속의 크리스마스에 어른과 아이들은 무엇을 준비했나요?



곰 아줌마



코끼리 아저씨



거북이



토끼



다람쥐 남매



부엉이 할머니



아기 오리



꼬마 곰, 꼬마 코끼리



달팽이 가족